

# “치료 위한 배아복제 허용 가능”

## ‘생명윤리법안’ ... 불교계 입장

부처간 이견과 시민단체, 종교계의 반발 등으로 2년여를 끌어온 정부의 생명윤리법 제정안이 18일 확정됐다. 국회의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이외에는 체세포를 복제해 배아를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로써 2년여 동안 술한 논쟁을 불러온 생명윤리법 제정이 한 걸음을 더 내딛었다. 그러나 난치병 치료를 위해 체세포 복제 허용을 요구해온 의·과학계와 달리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체세포 복제에 의한 배아복제에 반대해 왔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배아복제의 허용 여부를 놓고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 ◇생명윤리법 제정 추진 배경

국내에서 생명윤리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1996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에 의해 복제양 ‘돌리’가 탄생한 데 이어 1999년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복제소 ‘영롱이’가 탄생하면서부터다. 특히 지난해 미국의 클로네이드사가 세계 최초로 복제인간을 탄생시켰다고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고,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안조차 없는 국내에서도 인간복제 금지 등 생명윤리 관련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추진 현황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생명윤리 관련 법안은 모두 4개다. 인간배아 복제만을 금지한 이상희, 이원형 의원 안과 인간배아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 허용을 둔 김홍신 의원 안, 그리고 국회 가톨릭신도위원회장 김덕규 의원이 인간배아복제를 전면금지하고 인간과 동물간 또는 동물간 교잡을 통한 이른바 ‘이종간 교잡’을 금지하는 가톨릭연합을 그대로 수용해 지난 3월 제출한 ‘생명윤리기본법안’이 있다. 배아복제를 선별적으로 허용한 정부 안이 제출되면 5개 법안을 한데 묶어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참조>

### ◇쟁점

정부안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 생명윤리법안은 인간복제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체세포 복제에 의한 배아복제와 이종간 교잡의 원칙적 금지다.

과학자들은 체세포를 복제하여 만들어진 배아세포에서 줄기세포(장차 간이나 폐 등 각종 장기로 자리잡을 수 있는 세포)를 추출, 배양해 난치병 환자에게 이식하면 면역 거부 없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인간배아를 조작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피할 수

### ■생명윤리 관련 법률안 주요 쟁점사항

| 쟁점사항    | 김홍신 의원 안   | 이상희·이원형 의원 안   | 김덕규 의원 안 (친중안) | 정부 안              |
|---------|--|--|----------------|-------------------|
| 명칭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 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   | 생명윤리기본법안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
| 인간배아복제  | 전면 금지  | 전면 금지  | 전면 금지          | 전면 금지             |
| 인간배아 복제 | 원칙적 금지<br>- 다만,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이 허용 결정을 예외적 인정<br>- 진행중인 연구는 복제부정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가능 | 원칙적인 금지를 하지 않고, 연구허용범위를 생명윤리위원회에서 결정<br>- 질병치료 및 이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의 이용에 한함 | 전면 금지          | 연구용에 한해 허용        |
| 이종간 교잡  | 원칙적 금지<br>- 다만,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이 허용 결정을 예외적 인정                                     | 직접적인 규제 규정은 없음. 생명윤리위원회에서 허용범위 결정                                      | 전면 금지          | 질병치료 연구 목적일 경우 허용 |
| 생명윤리위원회 |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  | 국무총리 산하 자문기구   | 심의 결정 기구       |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       |

### ◇배아복제에 대한 불교의 시각

개신교와 가톨릭이 교단 차원에서 생명윤리기구를 가동해 생명윤리법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데 비해 불교는 배아복제 등에 대해 분별하고 공통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불교가 원칙적으로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윤영해 교수(동국대)는 “과학자들은 최소한 최후선이 나타나고 간이나 폐 등 내부 장기를 형성하기 직전인 14일 이전의 배아는 생명체라기보다

도 배아복제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상반된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윤교수는 “복제기술 자체를 두고 선악을 논할 수는 없다. 불교에서 복제기술 허용여부는 다른 존재를 헤치느냐 아니냐로 판단해야 한다”며 “치료 목적의 배아복제도 불교에서 볼 때 자신의 행위를 위한 이기적 동기에서 남, 즉 수정란을 헤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는 악”이라고 말한다. 단, 윤 교수는 “불교적 입장에서 배아복제가 생명을 절대로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전제가 확보된다면 치료를 위한 복제 연구는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반면 김 교수는 “근본적으로는 안되지만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이라는 단서를 단다면 배아복제는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즉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살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살생이므로 용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호진 스님(전 동국대 교수)은 “신에 의존하는 기독교와 달리 불교는 인간의 문제는 인간만이 해결할 수 있다”며 “배아를 죽이는 것은 나쁘지만 고통 받는 많은 사람을 낫게 해 줄 수 있다면 결국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냈다. 불교 윤리 전공의 안옥순 교수(전남대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생명복제 자체의 가·부류 때나 활용하는 사람의 태도 문제가 중요하다”며 “생명윤리에 대한 종합적, 포괄적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정순간부터 생명체... 조작 살생행위

## 타존재 ‘헤치느냐 아니냐’가 판단기준

## “고통 덜어줄 수 있다면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배아란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서 만들어진 수정란으로, 하나의 생명체가 갖춰야 할 기관들이 형성되기 전 단계를 말한다. 이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면 태아 과정을 거쳐 인간이 태어난다.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배아복제를 반대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특히 개신교와 가톨릭은 장차 인간으로 탄생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배아를 인간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신의 창조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간주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이지현

한국JTS 사무국장



## 이웃에 나눠줄 수 있는 것

## ‘덜 쓰고 안 버리는’ 가난한 사람들 오히려 더 베풀며 살고 있어요

JTS는 기아, 질병, 문맹퇴치를 위한 국제구호단체로 인도, 북한, 아프가니스탄의 어린이를 돕고 있다. 한국 사무실과 인도 아프가니스탄 현장에서는 하루 100여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활동을 하면서 얻은 깨우침이라면 ‘한국에서 태어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다. 당신이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많다. 건강하고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생활할 줄 알며 a, b, c도 알고 경험한 여러 가지의 사소한 것들이 세계민간지역에서는 조금 노력하고 의하면 곧바로 교사가 되고, 의료전문가가 될 수 있다. 지난해 의료활동을 전혀 해보지 않았던 박경미님이 JTS지바카 병원에서 결핵환자를 담당하면서 느낀 소감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환자들이 병원 앞에 벌써들 줄지어 있네요. 아이 한 명은 배가 몹시 아프다고 와서, 선생님을 기다리다 얼마나 아픈지 누워서 울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지바카 병원을 없었던 날, 오늘 의사가 안오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터무니없는 상상을 해 봅니다.

짧은 상처를 꿰고 치료하는 데도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어린이가 부러져라 입을 다물고 있는 나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아이의 지금까지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매일 먹어야 되는 결핵약을 가지러 오지 않아 직접 전달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환자가 병원에 찾아왔을 때는 어찌나 기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들이 약을 가지러 오고 주는 것만으로 저희가 이렇게 기뻐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들과 비교하

면 상상이 안 되는 풍족한 생활을 해왔는데 이상하게도 이들 앞에서 작아지는 제 자신을 봅니다. 아마도 어려운 환경 탓에 단지 몸이 허약하고 할렷을 뿐, 오히려 이들에게는 몇몇하고 강인한 정신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그냥 그대로 불행도 불만도 없이 마치 물 흐르듯이 살고 있는 이들. 물질은 풍족하지만 정신은 빈곤한 우리들의 삶과 비교해 보면 어느 삶이 더 행복한 삶인지 섣불리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우리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며 살고는 있지만 이들이 안 쓰고 안 버리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베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의 후원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시간으로, 혹은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돈으로, 그리고 이들은 정신적인 필요로움으로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결핵환자들이 결핵약을 가지러 오지 않을 때, 그래서 집으로 찾아가야 할 때 가끔은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내 부모, 형제라면 난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문제들이 간단해 지는 것 같습니다.

머칠 전 약을 가지러 오지 않는 환자 집에 약을 주러 갔는데 만날 수가 없어서 오늘 새벽 6시에 자전거를 타고 찾아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시간에 비용을 치르며 헬스 자전거도 타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 시간에 인도에서 약도 전달하고 운동도 하고 참 좋구나, 근데 그 환자가 내가 운동이 필요하지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새벽부터 웃어봅니다.”

## 2003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안내 (전통공예학과)

1.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학점은행제는 일반대학교 동등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4년제 학위 과정입니다.
2.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105학점, 명지대학교 시간제 이수료 35학점으로 총 140학점을 이수하면 교육 인적자원부장관명의로 학사학위를 취득.
3. 진 로 : 학사학위 취득 후 일반대학에 편입할 수 있으며, 대학원 진학 가능.
4. 모집전공 및 인원
  - ◆ 목조각전공(목조각, 소목, 대목, 옷칠공예) 각 10명
  - ◆ 직물공예전공(염색, 자수, 침선, 매듭공예) 각 10명
  - ◆ 단청전공(불화, 단청, 민화) 각 10명
5.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 ◆ 전문대 졸업자, 대학졸업자.
  - ◆ 문화재 보유자 및 조교, 이수자, 전수생(이에 해당되는 조기졸업 가능)

## 2003학년도 후기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모집안내 (전통공예학과)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은 세운와·정보화 되어가는 미래 산업사회의 요구에 맞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한다.

|  |  |
|--|--|
| 1. 모집전공 : 목칠 공예화(단청 민화), 직물공예(침선, 염색, 매듭)  | 1. 모집전공 : 공예관련 모든전공                                |
| 2. 지원자격 :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예정자 및 동등 자격자 | 2. 지원자격 : 학력, 연령 제한 없음                             |
| 3. 특전 및 제출서류                               | 3. 특전 및 제출서류                                       |
| ① 전공분야 경력자는 입학특별전형                         | ① 본 과정을 이수한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수료증부여                       |
| ② 전공관련 기술자 자격시험 응시가능                       | ② 본 과정의 수료증은 본대학교 동문회 회원자격취득                       |
| ③ 입학원서(본원양식),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통, 졸업증명서      | ③ 본 과정의 수료자는 동일계열의 정규과정 진학시 우선권 부여 및 취득학점을 인정부분 인정 |
|  | ④ 입학원서(본원양식), 사진2매(반명함판), 주민등록등본 1, 제적증명서          |

- 전형일정 : ◇ 모집기간 : 2003년 5. 10(월) ~ 6. 20(금) ◇ 등록기간 : 2003년 6. 28(금)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수능시험과 무관)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사진 3매(반 명함판 3cm × 4cm), 주민등록등본 1통,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통
- 접 수 처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부 명지대학교 전통공예학과 사무실 우)120-728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02) 300-1463~5

New Millennium Vison  
사랑과 창조의 새천년 명지

# 명지대학교

## 봉은승복사 할신타점

불법승 상모에 귀의합니다. 30년을 한결같이 부처님께 시봉드는 마음가짐으로 중생해 온 저희 봉은승복사가 올해로 개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개점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스님 및 불자들의 어려운 제방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전체품을 할인(30%)된 가격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직접 내방하시어 타사의 제품과 비교해 보시고 좋은 고견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안내



### 가격안내

- ◆ 모직혼방 ※ 20만원이상 구매시 티셔츠 1장 증정함 ※
  1. 적삼, 바지 100,000원
  2. 동방, 바지 130,000원
  3. 두루막 150,000원 ~ 200,000만원
  4. 장삼 특징 - 가볍고 통풍이 잘됨  
모직 150,000원 ~ 200,000만원
  5. 신도복(단체주문할형)  
조끼, 바지(모직외색) 60,000원
  6. 셔츠(자이나 라운드) 7. 반가사 50,000원  
결방, 손가방 대가사 80,000원

### 온라인 은행구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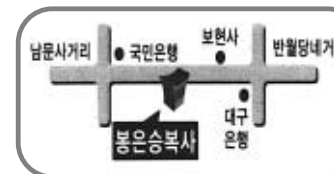
- ◆ 국민은행 : 617-21-0388-842
- ◆ 우체국 : 701227-02-029554
- ◆ 예금주 : 박철오

## 봉은승복사

전화 : 0531421-5451 / 0531424-5462

휴대폰 : 011-821-545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72-18



대리점 모집합니다



